

“北 6자회담 복귀 촉구” 재확인할 듯

■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 무슨 얘기 나눌까 북핵 문제·전시작전통제권 주 의제 FTA 체결 원칙 등 큰 틀 의견 교환

14일 오전 (한국시간 15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 현안 등이 주 의제로 다뤄진다.

양국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정상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이날 50분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양국 기자들이 참석한 ‘언론회담’을 통해 10분간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어지는 1시간 예정의 오찬에서 한미 FTA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북핵문제=참여정부 출범 후 6번째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역시북핵 문제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로 6자회담 교착 정국이 더욱 경색됐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고, 북한 핵실험 준비설까지 흘러나와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조치까지 검토되는 시점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조속히 복귀

시켜 회담을 재개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다자회담 개최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존 6자회담 틀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6자회담 당사자국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정상은 원칙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큰 틀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황을 반전시킬 구체적 해법이나 ‘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낮은 수준의 원칙적 합의’라도 양 정상의 공동인식이 한 목소리로 표출된다면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북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 도출보다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현안중 국내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큰 원칙에서 한미 양국간에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안보 불안 논란



부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새벽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양국이 2009년이나, 2012년이나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전작권 환수 시기 조정문제까지 정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미 FTA 등 기타 현안=한미 FTA 체결 원칙 등

에 관한 큰 틀의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 FTA 체결 지지 등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장필수
경제부처장

실물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기간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엔 실물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국제통화기금)때보다도 나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부임한 남세기 본부장과 출입기자단간 상례례 자리를 마련하고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전남 지역 수출구조의 특징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광주·전남지역의 수출 규모는 3배 가량 증가했고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도 1조1천억원과 4천억원에서 각각 7조6천억원과 2조2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체감 경기의 밑바탕이 되는 일자리도 4배가 많은 4만여 개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호전된 실물경제 지표와는 판관이다.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이 운영하는 길거리 매장은 갈수록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불황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사람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지역 백화점들은 올 봄을 기점으로 갈수록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매출이 떨어지다보니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판촉비를 늘려보지만 매출은 늘지않고 순이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백화점 관계자들은 이번 달에는 전폭 점포에서 최하위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급기야 본사에서 간부가 불시에 점검을 나오고 실적 때문에 본사에 불려가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지표와 경기간 괴리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지표가 실제 경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도 수출과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산업연관표’가 지역 체감경기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 양극화로 인해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시민이 경기가 나쁘다고 체감하는 정도가 갈수록 강해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여기에 타 지역보다 훨씬 심한 지표와 경기간 괴리감은 어떻게 설명할까. 이에 대해 유통업계와 금융계에선 자동차 등 특정품목에 치우친 산업구조와 타 지역에 비해 고용과 소득창출 효과가 작은 지역산업의 특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개월 넘게 지속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파업이 소비침체에 결정타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bungy@kwangju.co.kr

“美 작통권 이양시기 아직 미정”

美 고위관계자 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해 결정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관해 “결정된 게 없다”며 이에 관한 미국 입장은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논의해 결정하게(work out)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에 관한 사전 브리핑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009년을 원하고 한국은 2012년을 선호하는데 정상회담에서 절충이나 논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에선 이들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도 전작권 이양시기에 관해선 “미 행정부내에서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해 미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시사했다.

이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관해 논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군사 당국에 맡길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여러 다양한 희망 시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한국에서 커다란 논란거리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 군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의해 논의될 문제이며, 내달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이양 자체에 대해선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미 군사능력을 감안한 로드맵을 한국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양이 이뤄지면 “진화,성숙하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굳건히 유지되는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기가 매우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진화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안보공약은, 어떤 시나리오하에서도, 철석같이 유지될 것임을 모두 매우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美·日 근로자 15분에 할일 한국 근로자는 1시간 걸려

대한상의 ‘생산성 제고 보고서’

韓 생산성 OECD國 평균의 39%

미국과 일본의 근로자들이 15분 내외의 시간을 투입해 생산해내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한국 근로자들은 무려 1시간을 투입, 창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해 13일 발표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7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2000년-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국가 평균인 27.0달러의 3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40.0달러), 일본(39.9달러), 프랑스(35.6달러), 독일(34.0달러), 영국(32.1달러) 등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1인당 GDP 1만달러대)일 때와 비교해도 이들 선진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20달러 이상이었으나, 한국은 9.4달러(1995년-2004년)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다. 다만 한국 근로자의 80년대 시간당 노동생산성(4.1달러)은 OECD 평균(22.7달러)의 18.0%, 90년대 시간당 노동생산성(7.5달러)은 OECD 평균(27.0달러)의 27.6% 등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 확대와 함께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산업구조, 기업환경 등 3개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과제에는 노동관계 개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관리 개선, 서비스업 육성, R&D(연구개발) 확대 및 생산성 파급효과 증대, 투자활성화, 신성장산업 육성, 규제완화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중심역력

방심터 중심이 살아있습니까?

세계가 인정한 남성 의료가가

3분이면 수술이나 석양이후목!

089-333-3202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몰입한방으로

www.hanboGAGU.com

100%의 품질과 서비스

한보가구 060-225-0100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060-225-0100